

# 커리큘럼 改革과 7大 보고서

—美國 高等敎育의 개혁동향 ①—

李 鉉 淸

(캘리포니아 버클리大 高等敎育研究所 客員研究員)

## 美國 高等敎育의 개혁동향

1. 커리큘럼 改革과 7大 보고서
- 2.
- 3.

### 1. 序 言

21세기를 가리켜 퍼킨스(Perkins)는 '전문화 사회'(professional society)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경제학 교수인 쇼르(Schor)도 21세기는 '고용과 저고용의 사회'라고 지적한다.<sup>1)</sup>

지금껏 고등교육이 엘리트중심주의에서 대중 고등교육으로 전환된 이래 고등교육의 핵심적 기능 중의 하나가 分配와 選拔의 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에 지적한 21세기 사회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현대 고등교육은 많은 문제성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대중고등교육이 도래한 이래 대학의 예산과 정원정책, 연구활동 등은 실

용적·응용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왔으나, 아직도 전문화사회의 인력공급과 고용창출 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는 한마디로 21세기에 대비한 高等敎育 改革의 時代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등교육의 개혁에 대한 관심이 점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80년대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온 공교육,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비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체제로부터 커리큘럼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에 걸쳐 거듭되어 온 비판의 핵심은 고등교육의 質 低下와 國家發展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증대에 관한 것이다. 특히 '90년대 미국의 고등교육 개혁은 '80년대의 지속된 大學敎育에 대한 개혁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데, 주요 改革領域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60년대 이래 발전시켜 온 고등교육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설정을 위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둘째는 보수적 대학교육정책에

1) Juliet Schor의 글 *The Overworked American* 참조.

대한 어떤 이념적 뒷받침을 위한 내용들이라 볼 수 있다. 셋째는 소위 제 3의 안건(third agenda)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앞서 첫번째와 두번째 개혁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내용들로서 급진적 교육이론가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高等教育改革案이다.

이 글에서는 소위 기존의 교육내용이나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보수적 개혁동향을 비롯하여 두번째 경향인 이념적 틀을 강화하려는 시도, 그리고 제 3의 경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주요 보고서들에 의거하여 살펴볼 것이다.

## 2. 高等教育 改革과 報告書

高等教育 改革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대학교육이 大衆化된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앞서 서언에서 언급한 대로 고등교육을 위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 흐름과 내용으로 집약될 수 있다.

첫번째 동향은 대학교육의 制度的 基準을 확립해 보고자 하는 경향으로서 기존의 학문체제와 가치를 확고히 확립하여 사회변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따라서 이 동향은 대학교육의 기존 커리큘럼과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어떠한 사회변동이 예측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자들의 주장이다.

두번째 경향은 대학교육의 동질성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앞선 주장이 내용이나 커리큘럼의 개혁 등을 주로 다룬다고 본다면, 이 경향은 體制나 大學의 機能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는 논자들의 개혁 논의라 볼 수 있다.

세번째의 동향은 대학교육은 개혁된 사회를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經濟的·社會的 正義具現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는 견해들이다. 특히 '80년대는 '90년대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육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개혁에 대한 연구들이 교육의 주요 주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의 고등교육 개혁동향이 효능성과 대학등록률의 성장 그리고 高等教育의 機能에 관

한 것이 주요 내용들이었다면, '70년대는 大學의 多樣性和 직업주의에 대한 관심이 주요 동향이었다. 반면 '80년대의 주요 개혁동향은 다시 커리큘럼, 학업성취의 기준설정과 大學教育의 質 확립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고등교육 개혁의 흐름들은 '90년대의 미국 고등교육 개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80년대의 대학 커리큘럼의 개혁에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의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주요 논제 중의 하나인 '교육성취'에 관한 개혁동향과 관련되어 있는데 '90년대에 와서는 교양교육, 인문교육 그리고 커리큘럼 개혁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동향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혁에 영향을 미친 報告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의 美國 高等教育 改革에 영향을 끼친 보고서는 7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주로 1984년부터 '89년 사이에 정책기초자료로 제시된 것이다. 이들 보고서는 주로 연방정부와 워싱턴의 연구기관들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소위 연구보고서의 시대라 지칭되는 '80년대에 이루어졌다. 이들 보고서는 *Involvement in Learning*(1984), *To Reclaim a Legacy*(1984), *Integrity in the College Curriculum*(1985), *Memorandum to the Forty-first President*(1988), *One-third of Nation*(1988), *Minorities in Campus: A Handbook for Enhancing Diversity*(1989), *One, All one System*(1985) 등이다.

이들 고등교육의 개혁에 관련된 보고서는 한마디로 대학 커리큘럼, 교수,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학생들에 관해 다룬 것으로서 주요 제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문과 교육기준을 설정하고 커리큘럼 내용과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 全大學단위의 의사결정과정의 필요하며 커리큘럼의 質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② 보다 나은 재정 지원과 학습환경, 더욱 충실한 교사교육을 통해 教師教育의 質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③ 직원채용, 서비스 그리고 호의적 환경을 확립시킴으로써 인종·민족·문화가 다른 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④ 大學 準備教育을 강화시킴으로써 대학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학습기법과 효율적 대학교육 수행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이들 보고서는 주로 기존의 대학교육을 급진적으로 개혁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체제 위에 내용과 과정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주장들이다. 따라서 체제적 개혁(structural reform)이라기보다는 過程의 改革(process reform)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 인구의 확충이나 대학체제의 개혁이라기보다는 기존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質'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sup>

### 3. 주요 高等教育 改革의 爭點

Kerr는 2000년에 필요한 고등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고등교육의 社會的 寄與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sup>3)</sup>

Kerr의 주장은 대학교육 인구의 高原現象을 비롯하여 학위과정의 다양화, 보다 나은 고급기술의 습득 필요성, 과학 관련 연구의 필요성, 보다 활동적이고 보다 교육받은 인간의 필요성, 그리고 재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봉사기능 증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이 증대되고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美國의 高等教育 改革動向도 이 점에서 대학인구의 변화추세와 大學教育의 社會的 機能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고등교육의 주요 쟁점들은 앞서 소개한 7개의 보고서에서 흐름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등교육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에 맞추어 볼 때 美國 高等教育의 改革은 ① 소수민족과 대학 적령인구 이외의 대학 수험자, ② 국제경쟁력 증대와 고등교육의 역할, ③ 대학교육비와 예산, ④교양교육, ⑤ 교사교육, ⑥ 산학협동, ⑦ 대학평가와 책무성, ⑧ 대학 지도력과 경영 등으로 비교적 다양한 연구주

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압축된 진해는 대학교육의 環境造成과 대학교육 過程에 대한 개혁내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고등교육 개혁의 쟁점은 물론 체제의 개혁이라기보다는 과정의 개혁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80년대의 공개적·형식적 개혁 노력과는 달리 '조용한 개혁'(silent reform)이 그 특성으로 보여진다. 물론 고등교육의 쟁점이 어떠한 것이든 체제, 내용 그리고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것이지만, '90년대의 개혁은 社會的 欲求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의 질 확보에 있다고 보여진다.

'90년대 개혁의 쟁점이 위에 제시한 바대로 대학인구의 변동과 사회변동에 따른 教育의 質 確保에 있기 때문에 '60년대에 지배적이었던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했던 학생들의 自律性 문제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학인구와 급속한 사회변동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자체가 어떤 기준과 가치 그리고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서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변화된 상황이 고등교육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종래의 대학기능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에서 탈피하여 大學 本來 機能으로의 회귀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별적 특성이나 다양성에 주목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체적 커리큘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분명한 의사결정과 방향체시가 개혁의 주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이 학문적 가치와 요구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과정의 實踐과 학문적 基準設定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개혁의 주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에게 커리큘럼 내용과 체제에 관한 분명하고 기준이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한계

2) '90년대 개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들 보고서는 대학의 충격과 질, 교육의 효율성, 교육과 사회적 요구, 그리고 고등교육의 위상 등에 관해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관해서는 Clark Kerr의 *Three Thousand Futures*(1981)를 참조하기 바람.

와 과정 그리고 평가에 관한 標準設定이 개혁내용의 주가 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는 미국의 우수대학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구그룹의 활발한 움직임도 주로 캠퍼스내에서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학 환경요인, 학급의 성취요인, 그리고 교수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집중되고 있다.<sup>4)</sup>

에컨대 *Involvement in Learning*에서 볼 수 있는 개혁에 관한 주장은 대학이 곧 學習과 분배된 責任의 場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고등교육의 방향은 곧 學生中心이 되어야 하며, 학급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등기관은 한 지역사회가 되어야 하며, 모든 대학인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육개혁의 주된 흐름은 自己責任(self-responsibility)을 위한 대학풍토의 확립에 두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 개혁동향에서 인식되고 있는 教育環境은 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고등의 탁월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반 기관간의 협력 그리고 대학을 구성하는 성원간의 공통된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향의 제시라 볼 수 있다. 특히 Newell(1984) 같은 이는 대학내에서 학문영역간의 상호 독립성이나 존중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학습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학문간·계열간·전공간 상호협력과 독립성 그리고 존중하는 풍토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Involvement in Learning*에서 주장되고 있는 대학교육 개혁의 내용은 학문적 가치와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학교육이 學生中心 學習(student-centered learning)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질을 확립하기 위한 일종의 방향제시로서 고등교육 개혁의 개념적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學習의 質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의 내용은 물론 1980년대에 이루어진 교육개혁의 주요한 내용이었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80

년대의 개혁동향을 더욱 확고히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짙다. 즉, 학생중심 학습을 통한 過程의 개혁이 주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 4. 知的 權威와 知的 相對性에 관련한 改革

앞서의 개혁동향의 주요 경향이 '학습의 질' 확립이라고 본다면, 知的 權威(intellectual authority)에 관한 주장들은 주로 대학에서의 인문교육에 대한 개혁동향이라고 볼 수 있다.

Bennett(1984)가 주장해 왔던 지적 권위와 지적 상대성의 문제를 압축한 주장은 *To Reclaim a Legacy: A Report on the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의 보고서에서 그 개념적 틀을 발견할 수 있다. 주로 이 보고서에서 주장되고 있는 바는 대학교육에서 학문영역간의 지적 권위와 지적 상대성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대학교육에서의 人文教育 프로그램이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보고서는 1984~'85년의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면서 미국 대학생의 75%는 유럽사를 이수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으며, 72%의 학생도 미국문학이나 미국사를 이수하지 아니하고 학위취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관점에서 소위 'great books' 프로그램의 제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주요 개혁내용은 '좋은 교수' (good teaching)와 '좋은 커리큘럼' (good curriculum)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목표와 질서가 있는 대학 커리큘럼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커리큘럼은 곧 교육기관의 가치와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주요 동향을 知的 權威를 確立하는 데 두어야 하며, 이러한 지적 권위와 지적 상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 커리큘럼의 제조정과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커리큘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이러한 연구들은 '학급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버클리대학과 하버드대학의 공동연구라든지 '상황적 학습' (situated learning)에 관련된 연구들을 지적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내용은 고등교육의 리더십과 상충되는 면도 있는데, 고등교육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은 대개 '60년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보고서의 개혁내용들은 인문커리큘럼에서 간과되고 있는 多文化教育 이라든지 人種中心의 커리큘럼(ethnocentered curriculum)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주장하고 있다.<sup>5)</sup>

가장 중요한 관점은 고등교육 사회가 이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커리큘럼의 규정과는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오도된 대학정신'은 바로 올바른 커리큘럼의 실패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특히 고등교육의 내용에서 歷史教育이 중요한데 미국의 대학 커리큘럼과 그 운영에 있어서 역사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전통을 수용하도록 할 것만 아니라 현실과 부합시켜 보다 생동감 있는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대학원교육보다는 大學教育에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등교육의 개혁에서 생동감 있는 人文教育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sup>6)</sup>

## 5. 大學 커리큘럼의 統合

1985년 미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학사학위의 목표와 의미'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너무나 무질서하고 다양화된 대학 커리큘럼이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하고, 지금껏 인식되어 온 '市場中心 커리큘럼'(market place curriculum)의 철학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Integrity in the College Curriculum*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한마디로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확산되어 온 시장중심 커리큘럼의 관점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교수와 학습에 있어서는 공통된 기대와 규범이 적용될 수 없으며 보다 합리적인 커

리큘럼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90년대의 고등교육 개혁내용을 보면, 커리큘럼의 원리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①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력
- ② 문자해득: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 ③ 숫자 개념의 확립
- ④ 역사의식의 제고
- ⑤ 과학
- ⑥ 가치
- ⑦ 예술
- ⑧ 국제 및 多文化的 경험
- ⑨ 심도있는 교육 내용

또한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 커리큘럼으로 선정·운영하는 데 있어 특히 고려되어야 할 점은 教授(faculty)의 가능성과 책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Involvement in Learning* 이 비교적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환경과 학습 분위기의 확립에 치중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보고서는 대학내에서의 教授의 責任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커리큘럼내의 論理的 統合을 고등교육 내용개혁의 주요한 관점으로 수용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 고등교육의 주요 방향을 반드시 커리큘럼의 통합에 두어야 하며, 이 통합도 성장과 다양성 그리고 교수들의 책임성 위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6. 結 言

앞서 제시된 바 있는 7개의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90년대 미국 개혁의 동향에 큰 영향을 끼친 것들이지만, 여기서 주장되고 있는 가정이나 제안은 주로 교수와 고등교육기관 혹은 대학생들의 변화를 기술하고, 이것이 어떻게 고등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보고서는 미국 고등교육 개혁에서 필수불가결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혁을 위한 방향제시의

5) 인종중심 커리큘럼은 오스트리아와 미국에서 활발히 주장되고 있는 개혁내용들이다.

6) 이와 관련하여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January 9, 1985)에 게재된 Norman Birnbaum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이론적 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90 년대의 미국 고등교육의 동향은 한마디로 '커리큘럼 改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쟁점은 효과적인 敎授와 효율적인 學習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에는 학생 학업성취의 변화와 커리큘럼 수정에 관한 문제가 도의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 또한 없지 않다. 특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커리큘럼의 개혁에 관한 것이 결국 생산적인 고등교육 개혁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쓸모없는 上空論으로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어떻든 앞서 소개한 7개의 보고서들은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이론적 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7개의 보고서 중 *Involvement in Learning* 과 *Integrity in the College Curriculum* 만을 소개하고 여기서 주장되는 논점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두 보고서는 결국 '90년대 미국 고등교육 개혁 동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 보고서들이 1989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혁에 더욱 영향을 미치리라 믿어진다. 물론 이들 이외의 보고서는 차후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미국 고등교육 개혁에 영

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이다.

그러면 왜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동향에서 커리큘럼이 중요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요구되는데 이들 커리큘럼 개혁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① 37%의 대학생이 역사와 관련된 과목의 이수없이 졸업이 가능하다.

② 45%의 대학생이 미국문학이나 영국문학 과목의 이수없이 졸업이 가능하다.

③ 62%의 대학생이 철학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졸업이 가능하다.

④ 77%의 대학생이 외국어과목의 이수없이 졸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커리큘럼의 개정과 재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90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개혁의 추세는 동일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Involvement in Learning* 은 1980년 초의 '국가적 위기' (*A Nation at Risk*) 보고서에 못지 않게 큰 영향을 미치며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에 기여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90년대의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동향은 한마디로 '커리큘럼의 개혁'이며 '과정의 개혁'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7) 이에 관한 논의는 Lynne v. Cheney, DeLoughry(1989), 그리고 Zemsky(1986) 등의 humanities education에 관한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람.